

광주·전남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전국 최고

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 급증 주원인...가계 부채 위험 수위 10월 기준 전남 전년 동기보다 21%, 광주 17.3% 증가

지역 곳곳에 재개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광주·전남지역 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16조2570억원(광주 11조3700억·전남 4조887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주담대 잔액과 비교하면 2조5217억원(광주 1조6737억·전남8480억원)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주담대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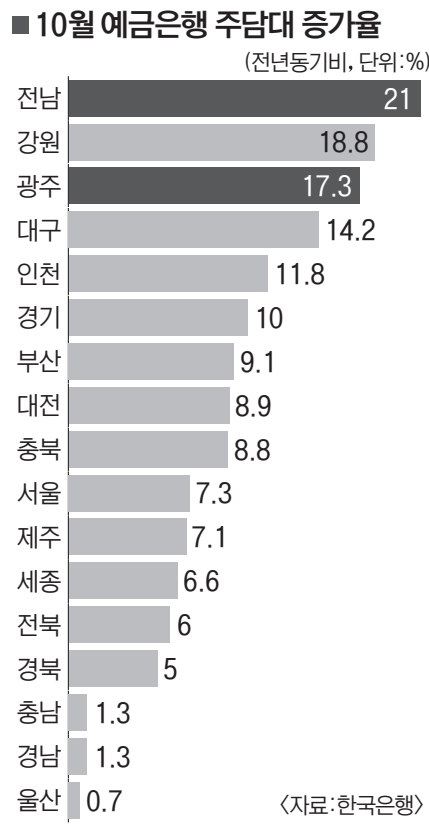
전남지역 전년비 증가율은 21%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17.3%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는 3번째였다.

전남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8.7%)의 두 배를 훌쩍 넘겼고 광주지역도 다른 대도시인 부산(9.1%)과 대전(8.9%)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주담대 증가율은 ▲1월 광주 15.6%·전남 11.8% ▲2월 광주 15.8%·전남 12.2% ▲3월 광주 16.1%·전남 13.3% ▲4월 광주 16%·전남 16.5% ▲5월 광주 15.2%·전남 18.8% ▲6월 광주 16.7%·전남 17.7%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전남지역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하면서 강원을 앞질러 4개월째 증가율 1위를 유지해왔다. ▲7월 광주 17.2%·전남 21.2% ▲8월 광주 16.2%·전남 21.2% ▲9월 광주 16.7%·전남 22.3% 등 광주·전남 지역 모두 가파른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주담대 증가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신규 분양 시장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보면 올해 광주 신규 아파트 입주량은 약 1만 3000호로,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입주물량(8754호)과 비교



하면 49.4%(4328호) 늘어난 수치다. 광주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1030만원(2017년)→1100만원(2018년)→1540만원(2019년)으로 상승했다.

지역 경제 전문가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역 내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련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65%)에 달한다.

가계대출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32.4%, 전남 31.7%로 모두 전국 평균(30.8%)을 웃돌고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취약차주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이 고위험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신규 아파트와 특정 주거지역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가구 분화에 따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대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7.93 (+7.85) 금리(국고채 3년) 1.37 (0.00)
 ▲ 코스닥 652.07 (+13.16) ↓ 환율(USD) 1161.80 (-2.10)

광주은행 '지역개발금융부' 신설

지역밀착 경영...조직 개편 단행

광주은행이 내년 지역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금융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26일 광주은행은 이날 지역개발금융부를 신설하고 3급 신입 점포장을 대거 발탁한 부점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역개발금융부를 앞세워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서는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재개발·재건축 시행사·시공사 자금유무를 전담한다.

이외 '상품개발팀'과 'TM팀'을 신설해 금융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비대면 마케팅을 활성화할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목포시 1급고와 광산구 1급고 운영을 맡은 데 이어 광주시 서구 1·2급고 재유치에 성공하면서 유관기관과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질을 높

이기로 했다. 목포시, 광주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지자체 1급고를 수행하는 5개 출장소는 모두 지점으로 승격된다.

영업점에는 40대 3급 신입 점포장을 대거 포진시켰다.

새로 임명된 3급 신입 점포장은 총 15명으로, 예비점포장 교육과 임원회의를 거쳐 선발됐다. 부점장 12명 등 기존 임원은 전원 유임되면서 변화와 동시에 조직 안정을 꾀했다.

고병일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은 어려운 영업환경을 타개하고, 광주·전남대표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2019년 사상 최대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새해에도 여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민과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학생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잡코리아 조사...대한항공 2위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20~24일 국내 4년제 대학생 총 1059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100대 기업 고용 브랜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꼽은 대학생이 10.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7.6%·2위)과 CJ제일제당(6.7%·3위), 한국전력공사(5.9%·4위) 등이 뒤를 이었고 삼성물산과 이마트는

각각 5.1%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이외에 신한은행(4.8%), 기아자동차(4.5%), 아시아나항공(4.4%), SK하이닉스(4.3%)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잡코리아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2004년부터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학생들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높은 연봉'을 꼽았다. 복지제도·근무환경(23.8%), 기업 대표의 이미지(21.7%)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 3.0%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0년은 '하얀 쥐의 해'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육아용품 매장에서 2020년 '하얀 쥐의 해'로 불리는 경자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고객이 쥐모양 출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가 26일 광주서 출범했다. (에너지소통혁신위 제공)

에너지 갈등 조정 '소통혁신위' 출범

광주 각계 전문가 20명 참여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가 광주에서 출범했다. 이 단체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올바른 소통을 통해 혁신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는 26일 광주시 서구 힐리데이인호텔에서 발족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관련 광역 소통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위원회에는 학계, 방송·언론계, 기관, 경제·산업계 등 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 20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기태 호남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놓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견해와 수렴

은 의제들을 매끄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소통 창구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격남건설에서 공극(구멍) 등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영광 한빛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산업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소통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한 소통과 혁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뜻 깊고 소중한 자리"라며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광역기반의 소통과 혁신을 통해 원전이 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직급 부이사관 상향

강성팔 국제협력담당관 발령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과장급 11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사 22면)

국세청은 서기관급인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의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높여 강성팔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을 전보·발령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또 본청 정보화3담당관에는 나환미 나주세무서장을 발탁했다. 나 담당관은 정보개발·전산운영 관련 업무를 21년간 맡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내년 4월 개서 예정인 광산세무서 개청 준비단장에 김태열 광주청 납세보호과장을 임명, 광산세무서 개서 진두지휘를 맡긴다.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